

29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

Chapter

고전 7:17~24, 고전 10:31~33

은혜찬송 71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67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오늘 배울



말씀

1. 그리스도인 학생으로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함을 압니다.
2. 공부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압니다.

마음 열기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



1. 신앙생활과 학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2.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가요?



말씀을 이해하기

현재를 살고 있는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아마도 학업 성적일 것입니다. 학창시절 성적이 그 학생의 미래 모습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사회적 통념, 자녀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잘했으면 하는 부모님의 기대, 또래 친구와의 순위 경쟁 등이 우리 청소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밝고 예쁘게 자라야 할 시기에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노예이거나 자유인이거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자신이 구원을 받은 그 위치를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학생의 신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학생의 위치를 지키고 본분인 공부를 성실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은 공부를 꼭 잘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달라 모두가 다 좋은 학업 성적을 얻을 수는 없더라도 성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사가 발견되고 개발됨으로써 훗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공부하는 목적은 이방인이 공부하는 목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 22:29)

Do you see a man who excels in his work? He will stand before kings; He will not stand before unknown men. (Pr 22:29)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잠 1:1~9)

(고전 10:31~33)

(단 1:8~21)

2. 조금 공부해도 성적이 좋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25장 14~30절을 읽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기록해 봅시다.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주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 학생으로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 지금까지 나는 왜 공부를 했는지 솔직하게 적어 봅시다. 혹시 특별한 목적이 없었거나 부모님의 성화 때문에, 혹은 마지못해 했던 경우라 하더라도 솔직하게 기록해 봅시다.
3.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부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태도를 다시 정립해 봅시다.

[동기]

[목적]

[태도]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그리스도인 학생으로서 자신의 삶에 지금보다 더 성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동안 많이 어두웠지...



어두워도 그것이 어둠인지 몰랐던 모습 속에
여러번 말씀을 접해도 교만함만 앞섰던 모습 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깨우시고
어둠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절로 내 눈에 빛이 보인다고 탄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욘 33:28)

다니엘 학습법 중에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신학도로 살면서 공부에 대한 은사를 계속 계발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공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와 말씀에 기초한 신앙과 생활 훈련을 해오셨습니다. 비결이라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너무나 쉽고 어처구니없이 간단한 답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약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 1:7)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고3 때까지도 저는 어머니에게 피멍이 들 정도로 많이 맞았습니다. 혹 그 자국을 본 친구들은 성적도 좋은 너를 네 어머니는 왜 그렇게 때리느냐고, 혹시 네 어머니가 계모 아니냐며 놀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맞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 집에는 대원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아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마라."

어쩌면 황당한 말 같지만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도록 훈련 시키셨고, 매일 정해진 양의 성경을 보지 않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너를 위해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그리스도인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고 육신의 양식을 먹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아무리 시험공부가 중요하고 대학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일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그 시간이 아깝다고 성경을 보지 않고 공부한다면 그런 공부하는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제게 곧 삶의 법이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다면 어김없이 종아리에 피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맞았건만 저는 지금 어머니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종아리에 피멍이 들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뻗속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이지요.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consisting of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